

제 128호 교육 목적: 삶과 삶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삶'(education for living)과 '삶'(education for making a living)을 위함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남과 더불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직업교육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에는 일터(직장, 삶)와 쉼터(가정, 삶)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인은 아침에 회사로 향하고, 아내는 집에 남아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되돌아 온 직장인은 일에서 '해방'되어 쉬고 싶어집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집에서 꿈쩍도 않고 '완벽한 쉼'(즉, 잠)을 취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새시대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회사원이 회사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미혼모와 이혼자가 증가하고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새시대 직장인은 일도 하고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유아원을 운영하여 부모가 일하는 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어 자녀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일터에서 가정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새시대에는 삶과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시대 직장에서는 삶과 삶을 구분하지 않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미국의 우수 기업(3M)에서는 직원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의 십분의 일을 직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직원은 낮잠을 자던 잡지를 읽던 바둑을 두던 잡담을 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창의력이란 여유(두뇌가 쉬고 있는 상태)가 있을 적에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DNA의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 클랙이 꿈(즉, '완벽한 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 유명한 설화가 있듯이 창의력이 중요한 새시대에는 쉼(여유)이 중요한 생산적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쉴 틈 없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보내어 하루종일 공부를 시키는 것은 자녀를 구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구시대적 능력이란 참을성(타율에 대한 적응력), 지구력(목표 성취 욕구), 암기력(기계적, 양적 능력)입니다. 물론 새시대에도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술선할 수 있는 지도력(자율에 대한 책임), 순발력(목표 설정 능력), 판단력(유기체적, 질적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대학생을 전공교육에 치중시키는 것 역시 구시대적 교육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새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양(인성)교육도 전공(직업)교육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실 밖의 체험적 교육을 고려해야 합니다.

삶과 삶을 위한 교육은 철학적으로 확실히 다른 차원의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떼어놓고 따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시대 교육은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이 서로 어우러져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 조벽, 2001